

전국 지회·지부 단합 체육대회 성황

관악, 양천, 부산, 인천, 광주, 안양, 울산, 포항 안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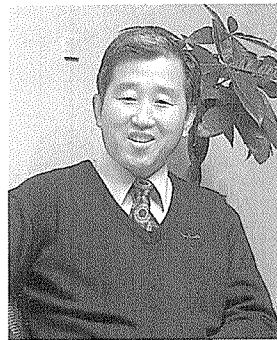
가을을 맞이하여 전국 지회·지부가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개최,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한편 단합을 꾀하였다.

인천지회는 10월 8일 구월체육공원에서 8개팀이 축구, 줄다리기 등의 게임을 가졌으며 우승과 준우승에는 제양구와 부평구가 각각 차지했다.

또한 울산지부는 매년 10월 13일을 과업인의 날로 정해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포항·광주지부와 관악지회가 10월 15일에 이어 부산지회(10월 16일), 안산지부(10월 18일), 양천지회(10월 19일), 안양지부(10월 19일)가 체육대회 및 추계 야유회를 갖고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졌다.

경북 안동지부 창립총회 가져 초대지부장에 이석현씨 선출

지난 10월 9일 안동지역 제과업주들은 안동문화 회관에서 회원과 관련업체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안동지부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이날 총회에서



이석현 안동지부장

온 힘을 경주할 것을 결의했다.

논산 지부, 제8차 정기총회 개최

논산지부(지부장 라동수)는 10월 23일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코리아나베이커리 임남수 사장이 협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았다.

온양지부 아산지부로 통합돼

아산시지부(지부장 정현봉)가 10월 12일 온천 2동 735번지로 새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한편 아산지부는 온양시와 아산군이 행

안동시지부는 초대 지부장으로 맘모스제과 이석현씨를 선출하고 지역 제과업계의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정개편으로 통합됨에 따라 아산지부로 지부명을 바꾸고 새로 탄생하게 됐다.

전주지부, 새지부장에 강대운씨 선출

전주지부는 임태희 지부장이 제과점업을 중단함에 따라 강대운 부지부장(신라명과)을 새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대전 과우산악회 한라산 등반

대전지회 과우 산악회(회장 이학수)는 10월 5일부터 2박 3일간 한라산 등반을 했다. 회원 37명중 30명이 참석한 이번 제주도 한라산 등반에는 한사람의 낙오와 사고도 없이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대전 주재기자 원귀식)

부천시부, 공동구매 등 다양한 행사 개최

부천시부(지부장 김오섭)는 양로원 방문을 위해 실시하는 성가병원 바자회에 빵과 케이크를 찬조, 제과인의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 용문산에서 단합대회 겸 야유회를 갖기도 한 부천시부는 호두, 밤 등을 공동구매 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쳤다.

군산지부 자체 사무실 마련

군산지부(지부장 정석균)는 나운동 롯데상가 210번지에 10평규모의 새사무실을 마련했다.

회원들의 기부로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군산지부는 이를 계기로 회원의 권익과 지역제과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